

세방산업 주변 TCE 농도 전국 평균 240배

(트리클로로에틸렌)

1급 발암물질 아무런 저감장치 없이 대기 배출

대단위 주거단지 전면 조사·직원 건강검진 필요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1급 발암 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 하남 산단 내 세방산업(광주일보 7월13일자 1·6면) 주변의 대기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 농도가 전국평균의 240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단체는 1급 발암물질인 TCE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세방산업 주변 대단위 주거단지의 TCE 농도 측정 등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호남권지역본부가 지난 2014년 세방산업 주변 하남동의 대기중 TCE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국평균(0.00013)의 240배에 가까운 0.0311ppm이 나왔다.

하남동 측정소에서 측정한 TCE 농도는

지난 2010년 0.0045ppm, 2011년 0.0021ppm 수준으로 전국평균의 20~50배 사이였다. 하지만 지난 2012년 0.0315ppm으로 급증했고, 2013년 0.0133ppm으로 다소 줄었다가 2014년(0.0311ppm)과 지난해(0.0246ppm) 다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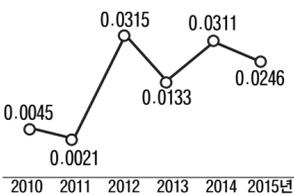
지난해 기준으로 세방산업이 294t에 달하는 TCE를 아무런 저감장치 없이 대기중으로 내보내면서 이로 인해 주변 TCE 농도가 전국평균보다 180배 가까운 0.02463ppm이 됐다.

TCE는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간암과 폐암을 유발하며, 흡입했을 때는 간이나 신장질환으로 인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대기 중 TCE 농도 증가는 세방산업의 배출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

■하남동 TCE 농도 추이

※ 2014년 전국평균 0.00013 (단위: ppm)



경부와 광주환경연합에 따르면 세방산업의 TCE 배출량은 지난 2011년 310t이었다가 TCE 농도가 급증한 2012년에는 439t으로 늘었다. 또 TCE 농도가 다소 감소한 2013년에는 배출량이 250t으로 줄었다.

TCE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하남3지구 등 주변 대단위 주거단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방산업 주변에는 하남3지구 등이 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그동안 TCE 농도 측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세방산업 내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저감장치 마련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한국 의학연구소 광주사무소가 지난해 하반기 세방산업 내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압출공정의 TCE 농도는 10.53ppm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50ppm) 이하로 나왔다. 하지만 오는 8월1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10ppm으로 강화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은 “단순하게 TCE 배출량을 줄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배출량이 줄더라도 주민과 세방산업 직원들은 항상 1급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상황이다”며 “근본적으로 기업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대체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철갑 조선대 작업환경의학과 교수는 “TCE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물론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을 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공장 가동 일시 중단

세방산업, 공인기관 검사 등 실태조사 받기로

배출량 줄일 저감시설도 설치

광주시·광산구 TF 구성기로

세방산업이 13일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공인기관 검사 등 실태조사를 받기로 했다. 광주시와 광산구는 TCE 배출 개선 권고를 내림과 함께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민행태 광산구청장은 이날 광산구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방산업 측은 조업을 일시 중단하고 자체 점검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 조사 등을 약속했으며 저감시설을 설치해 TCE 배출량을 꾸준히 줄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TCE 배출 허용기준은 현재까지 없지만 내년부터는 검출량 기준으로 기존 업체는 85ppm, 신규 업체는 50ppm 이하로 규제

된다. 2020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이 50ppm 이하로 배출하도록 했다.

광산구는 주민안전을 위해 해당 업체에 50ppm 이하, 저감시설 설치 후에는 10ppm 이하로 배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세방산업도 이날 오후 5시부터 이를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TCE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을 정비해 누출을 막고 공인기관 검사를 통과한 후 공장을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또 8월 중으로 TCE 회수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방침이다.

광주시도 이날 세방산업의 화학물질 배출과 관련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며 “시민·환경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조사 TF를 운영하고, 주거지역 등에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해 주민 감시단 운영과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죄송합니다” 13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세방산업의 1급 발암물질 대량 배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에 앞서 이 회사 생산본부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광주 광산구청 제공>

연축전지용 배터리 케이스·격리판 생산... 110여명 근무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 1번로에 있는 세방산업(주)은 연축전지의 주요 부품인 연축전지용 배터리 케이스와 격리판(Separator)을 생산하는 지역 중소기업으로, 11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다.

1971년 가내수공업 형태의 축전지 부품 산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해 열악한 제조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제품 개발과 부품규격화 축전지 산업 발전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입에만 의존하던 연축전지용 부품의 수입대체효과에 기여해왔다. 자본금은 21억원이며 연간 매출액은

741억원으로 알려졌다. 연간 4000만㎡의 폴리에틸렌 격리판과 1700만 세트 이상의 배터리 케이스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플라스틱 사출 배터리 케이스와 폴리에틸렌 격리판을 생산해 전지업체에 공급, 국내 축전지 산업이 수출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1996년 세방산업(주)에서 폴리에틸렌 격리판을 생산하면서 기존 PVC 재질을 대체할 수 있었다. 이번에 문제가 된 1급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이하 TCE)을 배터리용 격리판을 만들고 세척하는데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TCE는 지난 2012년 439t 등 지난 2014년까지 6년 동안 무려 1570t 사용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KTX 소음·진동 피해 첫 인정

환경분쟁조정위 “장성 자라양식업자에 7600만원 줘라”

고속열차인 KTX 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피해 사례가 처음으로 인정돼 배상을 받게 됐다.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의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KTX를 운행하는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은 고속철도 소음·진동으로 양식장 자라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백오씨에게 7626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성에서 자라를 양식하는 백씨는 인근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사육하던 자라가 동면에 들지 못해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며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1억2398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48㎡ 규모의 수조 2개동을 설치해 자라를 키웠는데, 양식장으로부터 약 35~40m 떨어진 곳에 KTX가 개통돼 3월부터 9월 말까지 사육하던 자라 3500여 마리가 동면 부족 등으로 집단 폐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2015년 5월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

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주장했다. 이는 철도교통 소음 관리기준인 주간 75dB(A) 야간 65dB(A), 진동 관리기준인 주간 70dB(V) 야간 65dB(V) 이내이기 때문에 고속철도 운행이 자라양식장의 직접적인 피해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박했다.

이에 따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전문가를 통해 고속철도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직접 실측한 결과, 평상시 수중 소음도는 105~112dB/μPa이고 고속열차 통과 시 수중 소음도는 129~137dB/μPa로 고속열차가 통과할 때 수중 소음도가 평소 보다 27~35dB/μPa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고속철도 운행시 발생한 소음·진동이 양식장 자라에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위원회는 자라 자연 폐사를 10~30%와 소음·진동 수준이 법적 기준치 이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전체 피해 주장액의 65%만을 인정했다.

실시한 고속철도 운행 당시 소음·진동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5·18 北 개입 주장’ 지만원씨 국가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내용의 동영상

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삭제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소5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3일 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씨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5·18 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이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을 올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항소심도 “방송심의위가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월권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연혜뉴스

선거범 위반 강운태 전 광주시장 징역 3년 6개월 구형

선야회 결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13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 심리로 열린 강 전 시장 등 11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조직 동원으로 인한 불법선거의 폐해와 선거의 인위적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며 “강 전 시장에 대해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전 시장 등은 4·13 국회의원 선거를 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22일 산악회를 설립한 뒤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4회에 걸쳐 남구지역인 연인원 6000여 명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간질 증세 병원 이송 40대, 갑작스레 도망치다 추락 부상

간질 증세로 119에 의해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도망을 치다가 4층에서 추락해 응급 치료를 받는 중. ○1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42)씨가 이날 오전 9시16분께 광주 동구 한 대학병원 4층에서 추락, 골절상을

입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것. ○A씨는 이날 평소 앓고 있던 간질 발작으로 아내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았는데, 경찰은 “A씨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도망을 쳤고, 평소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텔급,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등등 적합
- 시세 / 감정가 - 15억
- 용 6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협의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전원주택지

- ▶ 화순군 화순읍 다지리 산 12-7 대지 328평, 33세대중 1기
- 기반시설 조성중 (화순군청) 2016년 8월말 완공 예정
- 매매 - 1억 6천만원
-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전원주택지

- ▶ 장성군 동회면 남산리 1073-7 문화마을, 128평, 코너
- 계획권(지역, 위치 좋음)
- 36세대중 20세대 거주
- 매매 - 8300만원 (조정가)
- ▶ 주인직매 H. 010 - 3605 - 5000

무인텔

동업 / 투자 / 인수 하실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번지 도곡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콘도겸용)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객실 52개
- 시세 / 감정가 - 60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장기투자 최적!
- 용 10억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명도소송 진행중
- 명도 후 50억원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6억 2천만원
- 용자 - 5억 정도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